BR6199 남성과 여성 중 어느 쪽이 더 행복한가? 18-07-07

1972년 이후 매년 남성과 여성 중 어느 쪽이 더 행복한지를 조사하는 여론 조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여성이 더 행복하다는 여론 조사가 해 마다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의 행복도가 조금씩 감소되다가 1990부터는 남성이 더 행복하다는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현대의 여성은 그들의 어머니 시대보다 남성에 비해 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권리와 기회는 전례 없이 향상되었는데도 여성이 남성보다 행복하지 않게된 것은 어찌된 일일까요? 남녀 간에 임금의 차별도 법적으로 없어졌고 성추행의 정의도 넓어졌으며 처벌도 강해졌습니다. 여성의 간부급 승진도 크게 발전했고 가사의 부담도 크게 가벼워졌습니다. 교육의 기회는 오히려 여성 쪽으로 기울어 졌습니다. 미국에서 여성의 비율은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57%이고, 전문직 과장에서는 52%입니다. 석사 과정에서는 60%가 여성입니다. 여성이 결혼하지 않고 중년에 이르러도 비하하는 경향도 거의 자리를 감췄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남성 지배 시대는 석양을 맞이 했습니다.

연구된 결과를 제가 보지 못했지만 여성은 자녀를 가졌을 때 남성보다 더 행복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성은 남성보다 보람과 긍지를 더 느끼게 된다고 말하면 옳은 말일 것입니다. 하지민 인구 전체를 통틀어 보면 여성의 평균수입은 남성보다 낮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성은 엄마가 되기 때문이고 그런 임금 차이 때문에 엄마가 되지 않으려는 야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동종의 책임과 업무에 종사하는 남녀는 똑 같은 보수를 받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감옥 살이를 하는 죄수들도 어머니 날에는 어머니에게 사랑을 표시하기 위하여 카드를 요구하지만 아버지 날에는 그런 카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사형수 아들을 마지막까지 면회를 오지만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방영되는 중요 운동 경기에서 득점을 하여 TV 카메라가 그 선수를 비추면 “엄마 즉 Hi Mom” 이라고 외치지 “ 아빠 즉 Hi Dad” 라고 외치는 선수를 한 명도 저는 못 봤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 사랑은 똑 같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아버지 없는 아이보다 어머니 없는 아이가 더 불쌍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아이에게 어머니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약 20년 전에 로스 안젤레스 야구팀인 다저스의 3 루수의 아내가 해산할게 될 때 의사는 그 아기를 지우지 않으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산모는 자기가 죽고 아이를 낳겠다는 결심을 하고 산후에 타계했습니다. 이런 실례는 부지기수 입니다. 모든 남편과 아버지들이여, 여성인 아내에게 존경의 머리가 수구려지지 않습니까? 끝